

예 배	일 시	장 소
새벽 기도회	토요일 오전 7시	예배당
주일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예배당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45분	교육관 5번 교실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후 1시 35분	교육관 7번 교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Zoom
금요 예배	금요일 오후 8시	Zoom
예배 봉사자 기도회	주일 오후 12시45분	유아실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벧전2:3)”

주일 예배 봉사위원

	04. 04	04. 11	04. 18
대 표 기 도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김효종 집사
성 경 봉 독	정용현 집사	황희순 집사	김효종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1. 신약통독 - 1월 24일~4월 3일(70일) 하루에 4장을 읽으면 마치게 됩니다. 신약을 완독하시고 부활의 아침을 만날 수 있도록 도전해주시시오.
2. 사순절(2월17~4월3일) - 경건과 신앙훈련에 힘쓰는 기간입니다.
3. 고난주간 예배(Zoom) - 아침 기도회(29~4.3일, 오전 8시) 성금요예배(4월2일, 오후 3시)
4. 3월 생일 - 박혜리 자매(7일) Florian Flömer(13일)
5. 예배당 안에서도 코로나 대응 정부 지침을 지켜주세요(손 소독,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의료용 마스크와 FFP2 마스크만 허용됩니다(한국 제품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교우동정

생일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십 일 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합계(Euro)	

기도제목

1.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한민공동체
2. 육체적 치료와 영적 회복을 통해 기쁨을 나누는 교회가 되도록
3. 코로나 바이러스영향으로 영육이 위축되지 않도록
4. 김선택 협력선교사(주 헝가리)의 사역을 위하여



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담임목사 이 상 호 (Sang Ho Rhee)
예배반주 이 세 현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종려주일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 찬 송 Gemeindelied 140장 다같이
- 기 도 Gebet 김영희 시무권사
- 성경봉독 Predigttext 마 21 : 1 - 5(신p35)..... 김영희 시무권사
(Matthäus 21:1~5)
- 설 교 Predigt 예수의 방법대로 살자 이상호 목사
- * 찬 송 Gemeindelied 142장 다같이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지는 목상으로 대신 합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온라인 헌금은 정용현 회계 집사님께 문의해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정용현 안수집사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믿음의 사역을 위해 기꺼이 제물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사역을 위한 제물로 당신의 삶을 쏟아부을 용의가 있습니까?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제물이 될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섬기라고 명하시는 것을 원하지 않아 내가 희생할 곳은 내가 택하고 싶어 사람들이 잘했다고 칭찬해주며 나를 지켜봐주기를 원해’

영웅으로 추앙받으며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과 하나님이 정하시는 길이면 다른 사람들의 신발을 닦는 일이라도 기꺼이 하려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빌4:12)’ 을 가르치신다면 기꺼이 따르겠습니까? 당신의 섬김이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 쓰임 받고 닳아 없어져도 좋습니까? 당신이 섬긴 사람은 유명해졌지만, 정작 당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시시한 일은 할 수 없다면서 거룩한 성도로 남아 있고 싶어할 것입니다. 천한 일은 그들의 위신과 체면을 훼손한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 / 故 Oswald Chambers 목사

* 거룩한 애정이 없이 참된 신앙을 갖기란 불가능하다.

- Jonathan Edwards(미 청교도 신학자) -